

기획

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 1차회의

일시: 2012년 3월 12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6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전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대석·김윤하·경훈·노미향·윤영현·이모숙·임선숙·조미옥·천성권씨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이 참석했다. 강대석 전 전남공무원교육원 원장이 위원장으로, 경훈 본부장이 총무로 선임됐다. 제6기 독자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5차례의 모임을 갖고 광주일보의 제작에 대한 평가와 비판, 조언을 하게 된다.

“총선 후보 공약·정책 검증해 지역 목소리 대변해 달라”

강대석 (전 전남공무원교육원 원장)



홈페이지 인쇄·메일 기능뿐
소셜미디어 시대 보완 시급

조미옥 (나주 영산포여중 교사)



주5일 수업 토요방과활동
다양한 정보 전달해줬으면

임선숙 (변호사)



중앙·지역간 정책 대립각
지역민 권익 일깨워줘야

이모숙 (송은갤러리 관장)



사회면 미담 기사 아쉽고
경제면 생활정보 필요해

김윤하 (전남대병원 홍보실장)



‘A형 독감 유아 치료중 숨져’
사실 확인후 신중보도 돋보여

▲ 강대석=제6기 독자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돼 영광스럽고, 앞으로 1년 동안 독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위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독자위원회는 다양한 비판과 진심 어린 충고로 광주일보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올해 들어 첫 독자위원회이니 자유롭고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린다.

▲ 조미옥=중학교 교사로서 교육 부문에 관심이 많다. 특히 요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주안점을 두고 말하자면 학교폭력 대처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본이 학교폭력 사건마저도 선정적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일어난 사건보다는 일어나기 전 사회분위 조성에도 노력해달라.

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됐는데, 얼마 전 학교들이 개학하면서 토요방과활동 등을 놓고 여기저기서 혼선을 빚었다. 이런 부분도 광주일보가 미리 홍보해서 학부모들에게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임선숙=지역 신문의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에 노출되는 중앙 위주의 뉴스가 아닌 지역의 생생한 소식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현안이나 사정에 관련된 사항은 지역 신문에서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일보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준수원칙을 정하고 지켜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시즌이라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사안 등 대립각이 나올 수 있다. 이 때 지역민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나가고 대중에게 계도하는 것을 광주일보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총선이 끝나 후 승자에 대한 결과만 내놓지 말고, 패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 등을 면밀히 살핀 뒤 광주일보가 다시 제기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총선 구도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모숙=올해 가장 큰 현안 문제들을 광주일보가 잘 짚고 있다고 본다. 4·11 총선이나 여수박람회, F1,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이슈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 시기를 떠나 적절히 거론하고 있다. 특히 여수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관광객과 인프라에 대한 문제를 선행적으로 제기해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데 여전히 지역사회의 대한 배려가 약하다. 지적해도 개선이 안되다가 전시 기간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해도 애항심으로 덮고 간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광주일보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 바란다.

광주일보 사회면은 유독 사건보도에 매몰된 경향이 있다. 진실보도도 좋지만 때론 독자로서 ‘우리 지역은 사건밖에 없나’하는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기사도 넣어달라. 지난 3월 1일자 경제면 ‘광주명품 우리밀밭, 매출도 뽐뽐해요’ 기사는 주부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한 기사였다.

▲ 김윤하=대학교 홍보실장으로서 하루 20여개 신문을 살펴본다. 온라인 매체는 신속성이 있는 반면, 신문은 보도의 정확성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신문 보도에서 정보를 구할 때가 많다. 그런 점에서 광주일보는 타 지역신문보다 신중한 보도가 돋보인다. 지난 2월 15일 전남대 병원에서 ‘A형 독감 유아 병원에서 치료중 숨져’ 기사의 경우 다른 언론들이 성급하게 신중플루보 보도했던 것과 달리 광주일보는 A형 독감으로 보도, 사실 확인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광주일보의 하드웨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인쇄의 질이 떨어져 신문 앞면과 뒷면의 글자가 겹쳐보일 때가 있다.

즉 지질(紙質)이 좋지 않거나 인쇄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신문은 활자의 가독성도 중요한 만큼 개선사항으로 보인다.

▲ 윤영현=유럽발 재정위기 등이 겹치면서 국내 경제상황이 썩 좋지 않다. 지역 기업들도 고용이나 매출, 수익 측면 등 모든 부문이 올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총선과 밀접한 대선이 겹치면서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선심성 공약들이 정치인 사이에 남발되고 있다. 이런 공약들은 대부분 기업에 책임을 전가한다. 기업들은 이종고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언론은 정치적 측면의 공약·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기 보다는 지역 기업과 근로자들을 심층적으로 취재해 지역의 목소리를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천성권=보도는 균형감각이 첫째라고 생각한다. 근래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의 경우 거의 모든 언론이 대학을 질타하는 내용의 보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실제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대학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취재한 기사는 보기 힘들었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균형이 아닌 듯 싶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 이슈를 떠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가 됐다. 일시적 사건 보도에 그치지 말고 ‘릴레이’식의 기획 보도나 예방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강대석=광주일보는 아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인쇄와 이메일 기능밖에 없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할말이 늦은 셈이다. 빨리 보완해야 한다. 지역 신문이라 하더라도 중요 사건의 경우 다른 지역의 뉴스를 쓰는 것도 독자에게 정보 제공 차원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강원권, 충청권 등 타 지역 뉴스도 팔팔하게나마 실어달라.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각급 행정기관들은 매일 많은 양의 보도자료를 내지만 광주일보에 반영되는 양은 극히 적다. 일반 독자도 많지만 공무원 등 언론과 밀접한 관계의 독자들을 위해 보도자료 보도 비율을 높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 노미향=독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새로운 독자층을 발굴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주부독자가 되겠다. 주위를 살펴보면 여성독자 비율이 남성에 비해 적는데 이유는 ‘별로 볼 것이 없어서’다. 독자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정보 취득 내용이 다르겠지만 더 다양한 지면을 꾸며서 독자층 발굴에 힘써달라.

장애인이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인식 개선에 가장 힘들 수 있는 것은 역시 언론이다.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장애인·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은 물론, 정보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 경훈=지난 2월27일 사회면 ‘주5일 수업 전면시행, 토요교실 운영한다’데 기사는 개학 앞두고 타이밍이 좋은 기사였다. 학부모들에게 교육 현장 실태를 보여줄 수 있었고, 교육계에도 준비를 앞당기라고 주문하는 보도로 다가왔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 지 민간단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 소개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발굴해주기 바란다.

광주일보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 다시 본다’가 지난 6일까지 7회가 연재됐는데 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심층분석한 내용이 만족스럽다. 특히 지난 3월6일 ‘도시민 시골인심 맛보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정치인 선심성 공약 가려내
지역경제 살리기 철학 물어야

천성권 (광주대 학생지원처장)



학교폭력 단편 보도보다
릴레이 기획·캠페인 도움

노미향 (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사회약자 인식 개선 노력
기사 다양해야 독자 발굴

경 훈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생명산업 농업 다시 본다’
농촌 대안·심층분석 만족

며 일상탈출, 농촌은 농외소득’ 기사는 농촌체험 관련 내용 등에서 실질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농촌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비교적 복지 혜택이 잘 돼 있는 도시 독거노인에 비해 농촌 독거노인의 정신·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등을 더욱 심층 취재해 주길 바란다.

▲ 강대석=올해 첫 독자위원회지만 위원들께서 광주일보에 대한 바람과 비판들을 조리있게 잘 말씀해 주셨다. 더욱 더 많은 준비를 거쳐 다음 독자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들도 발전된 모습 보이겠다. /정리=임동훈기자 exian@·/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수열 공인중개사
양산동,연제동,본촌동,신용동,용전동 일대부동산전문
첨단2지구상가,단독물량다량확보

상가및근린시설
첨단2지구 빛고을대로 LG자이엠티코너 대지:900여평
첨단2지구 인근3000세대.용두인근3000세대상권
체인음식점,병원,교회등적합 평당:300만

양산택지구토지매매
본촌동원룸투지 300여평 평당:160만
연제동아파트정문앞도로변 상가지150평당:250만
본촌동아파트,중학교앞도로변:100평당:280만
양산동대로변코너상가대지46평 3층 81평:3억5천

단독주거지, 주택
양산동,양산초주변주택지37평:6500만(주택별)
양산동,양산동성당주변택지51평, 평당:110만

광주외곽인근
용전동 도로삼각코너:1300평 평당:130만
용강동자연녹지 담:900평 평당:13만

시외매도물건
장성군 북이면 임야:13,500평 평당:1만
담양군 대전면 전원주거지역:약700평 평당:50만
신용동생산녹지지역:900평 평당:40만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950번지
T.062572-8500 FAX:572-0732

**최고의 가치투자를
원하십니까?**

**니주혁신도시투자전문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061)333-7077

보물창고 010-2609-5888, 010-3619-3651
전남나주시산포면 매성리354-321(위치:산포면 전파관리소 부근)

■ 주요취급업무 : 중심상업용지, 상가/주택
주차장용지, 혁신도시주변토지 등

사실분, 파실분 의 방문상담을 환영 합니다.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
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안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 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참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매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안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참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다가구주택
· 동구 산수동 3층다가구주택 대지152평 건평180평
감정가6999천만 최저가442천만

상가및근린시설
· 남구 월산동 50m대로변(상업지역) 대지330평
2층건물400평 감정가 20억 최저가 11억5천만
· 북구 오치동 4층상가건물 대지114평 건평199평
감정가7591천만 최저가3955천만

단독주택
· 북구 오치동 2층단독주택 대지67평 건평65평
근린주택 감정가198천만 최저가1193천만

근린주택
· 동구 지산동 2층근린주택 대지263평 건평94평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3억8천만

토지매매
· 화순군 도곡면 도곡온천방향 4차선도로변 관리지역
농지1500평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담양군 남면 구신리 황원향한방병원부근 대지224평
관리지역 매매 평당50만(조정가)
· 광안구 대산동 관리지역 전방출용 차량진입가능
현 백일홍식재(포함매매가능) 매매 8천만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

가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용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중 주거지역 토지구함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서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신촌동, 대인동 소재)가은부동산